

투데이



10일 준공식이 열리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관인 국제습지센터 내부 전경. 절로 만들어 천장에 매단 흑두루미의 군무가 눈길을 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D-100

경제효과 2조원... 전남 동부권 획기적 도약

박람회장, 도심~순천만 사이 위치... 시너지 극대화

1만여 일자리 창출... 조경·한방산업 등 도약 기회

순천정원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정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또 '정원 문화'를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에 정원 문화가 확산하고 지역의 정원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순천 정원박람회장이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순천시 전체가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여수·목포·전남·전북·충북·충남 등 여수 세 계박람회 못지 않은 과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정원 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했다. 도심 공원을 조성하거나 녹색도시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정원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관련 산업에 미칠 과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무를 심는 것에서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문화가 바뀐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순천 뿐 아니라 장성의 잔디, 광양의 학제, 강진의 장미 등 주변 도시의 관련 산업도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 의미가 크다.

전남발전연구원 송태갑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산업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정원 산업 수요가 적었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정원 산업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1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700여원의 부가가치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를 전후로 1만1000여 개의 일자리도 생긴다. 남해안권의 조경·학제·뷰티·한방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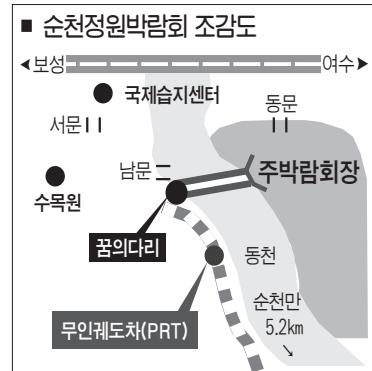
정원박람회는 인구 27만 명의 작은 도시 순천이 국제적 생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순천 만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등 220여 종의 조류와 120여 종의 식물, 25종의 멸종위기 생물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조직인 탑사르협회가 지정한 세계 5대 연안습지이기도 하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 4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입장권 예매

에 들어갔다. 예매 한 달 만에 58만장을 팔려나가면서 목표인 80만장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정원박람회의 인기는 폐막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나무와 꽃을 주로 사용해 행사장을 꾸미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숲이 무성해져 그 가치가 커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862년 영국서 시작 150년 이어져... 국내선 처음

■ 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는 한 마디로 세계 각국의 정원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지난 186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reat Spring Show'를 시작으로 정원박람회는 1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오사카 박람회에는 2300만명이 방문했고, 1000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쿠밍박람회는 지금도 매년

15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박람회의 형태는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단기간에 열리는 '헬시플라워쇼'가 대표적이며 독일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연방정원박람회(BUGA)와 10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IGA)가 유명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섬 400곳, 특색있는 이름 지어준다

전남도는 9일 "전국 최초로 '이름 없는 섬,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 천혜의 자원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2219개의 섬 가운데 이름은 있으나 미고시

된 신안 중도면 병풍리 '거명바위 섬'을 비롯한 359개의 섬에 대해 현지에서 불리는 섬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 또 전남도는 이름의 유래와 역사적 근거, 현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작업을 벌여 왔다.

거명바위섬은 섬에 경찰문양의 바위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부르는 것이고, 탕건도는 양반의 것 아

래 받쳐 쓰던 탕건과 같다 해서 불리는 등 형태의 특이성이 따른 이름들이 많았다.

이 밖에 이름도 없고 미고시된 461개의 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아름답고 특색있는 이름을 지어줄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전기요금 14일부터 4% 인상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1년5개월 만에 네 번째 인상한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삼야 전력 5.0%로 정했다.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

(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 달 종료된 '전통시장·요금 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美사업자-광주시 '캠코' 법정공방

K2AM측, 손해배상 중재신청... 市, "위약금 요구 소송"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캠코)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미국 측 사업자의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측 사업자인 K2AM가 자국 법원에 광주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 간 법정 공방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사업의 미국 공동 사업자인 K2AM 측

은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2AM 측은 사업 실패가 광주시 사업자의 불성실한 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공동사업자인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에 아직 K2AM 측의 소송 제기 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9일 2차 공판 과정에서 K2AM 측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는 주장이나 왔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민일 소송이 제기된다면 G-CIC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CIC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법원에 K2AM 측을 상대로 투자금 600만 달러 송금 이후 추가 송금한 7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

며, 그 결과를 본 뒤 위약금 92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싱가폴 중재센터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외는 별도로 기술력 겸성을 소홀히 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G-CIC 대표 김모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으나 재판부는 미국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핵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미루기로 했다. 김씨 측은 복잡한 재판 상황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악 라디오방송국 유치 나서

광주시가 국악전문 라디오 방송국 유치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지역에 국악방송국을 설립하는 내용을 글자로 한 유치신청서를 (재)국

약방송에 제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진도, 서울·부산·전주·남원에 국악방송국을 두고 있다.

시는 국악방송측에 광주방송국 개

국장소로 광주시 남구 빛고을 문화관 옆 아트 스페이스 공간(옛 전남체육회)을 추천했다.

(재)국악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0월 말께 광주방송국을 개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 설립 재원은 문화부가 올해 책정한 예산 10억여원으로, 광주시는 방송국 공간을 제공한다. 방송 송출

권역은 광주를 비롯해 여수·광양 등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국악방송국이 광주에서 개국하면 관소리·민요 등 남도의 대표적인 음악을 비롯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시민들이 폭넓게 감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울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에서도 죽한기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판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민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민두수)로 수십년을 묵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하여 안내함. 역술과 품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자곡리 95-2
(광주법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한 교통. 광고효과최고!

임대 중 1,2,5층 각 100평, 52평

권장임대 병·의원·약국·금융기관·사무실 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증개사무소(빌딩상가전문 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S the 1 오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 아동요리 지도사 & 폐백 · 이바지사 양성 특별과정반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PM2:00~PM4:00(12주)
교육과목 | 생채디자인, 푸드컬러, 꽃꽂이, 와인, 테이블매너,
푸드스타일링, 테이블 세팅

푸드코디네이터의 활동범위

푸드스타일리스트, 퍼티플레너, 테이블장식가, 레스토랑컨설턴트, TV·무대·무대디자인, 방과후 푸드코디네이터 강사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아동요리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AM10:00~PM12:00(12주)
교육과목 | 아동요리론, 아동요리지도사론, 아동요리와 음악,
아동요리의 예제와 실제, 아동요리 시연

아동요리지도사의 활동범위

방과후 아동요리지도사, 유치원·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아동요리지도사 등

2013년 1월 19일 개강!

폐백 · 이바지사의 활동범위

문화센터&평생교육원 폐백 · 이바지사 강사, 부업, 창업 등

2013년 1월 22일 개강!

푸드코디네이터 명인1호 · 김치소믈리에 명인2호
2012 대한민